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 *Success in God*

빌립보서 (Philippians) 4:4-7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성공을 꿈꾸고 도전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요즘 서점에 나가보면 성공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Everyone in the world dreams about achieving success and they challenge themselves to obtain it. I used to sometimes watch a television show depicting stories of “successful people”. As we look at these successful people, there is some “know-how” needed to be successful. That know-how is captured in the many books on the topic in bookstores.

커밍 워크라는 사람은 성공의 요인을 4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첫째 머리가 좋아야 한다. 둘째 지식이 좋아야 한다. 셋째 기술이 좋아야 한다. 넷째 태도가 좋아야 한다. Cumming Walk, a sociologist from the United States, tells us briefly about the four components of successful people. First, intelligence. Second, knowledge. Third, technique. Forth, attitude.

이 네 가지 중에서 성공적인 삶에 93% 이상 결정적인 요인을 주는 것이 바로 ‘태도’ 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머리는 타고나고 지식과 기술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좋아도 자세와 태도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Among the four, attitude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and accounts for 93% of the recipe for a successful life. In most of our lives, our attitude makes the decisions for us. Intelligence can be earned by nature. We can obtain knowledge and technique in school. However, even though we are an intellectual people and possess knowledge and technique, it is of no value if we do not have a good attitude.

특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공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뜻을/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얼마의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의 삶입니다. In this world, they say that success is having your will, or your desire, fulfilled. However,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success is having God’s will or desire fulfilled. The Bible does not tell us about what kind of job we are to have, or what kind of property that we are to have, or how much money to make. What we do is come up with our own definition of what success is. In doing so, we must realize and factor in that success in the Bible is obeying His will, being His instrument for His glory, and completing His work.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God wants us to live a successful life in this world as the people of God. God wants us to have an affect on this world as successful people and to not fail. In today's scripture reading we see that Paul lived through tremendous crises and great difficulties, but yet he lived a very successful life. He also gives us great advice in how we should live a successful life in this world.

첫 번째, 4 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First, in verse 4 it s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본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완전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는 교회분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인 유오디아와 순두게 집사님이 서로 싸우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Today's scripture requires us to rejoice in the Lord always. However, our life as a Christian causes us to not be able to do so. Paul was writing this letter to the Philippians from his jail cell in Rome. His condition doesn't seem to be of one that is rejoicing in the Lord always. Additionally, the Philippi church was in the middle of a struggle between various segments of its congregation. Euodia and Syntyche weren't agreeing with each other before the Lord. However, Paul pleads with them to rejoice in the Lord.

오늘날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쁨이 사라진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ven today, there are many things occurring in our personal life, our church life, and our family life that cause us to not rejoice. For some of us, joy has already disappeared from our life because of sickness. For others it may be lost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y. Even others are suffering from broken relationships. However, God wants us to rejoice. God wants us rejoice in the Lord always.

두 번째, 5 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Secondly, in verse 5 it says,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온순/친절 하라고 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관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We need to possess gentleness to have a successful life. When you look at this verse closely it says,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It is easy to be gentle to those who treat us nicely. But it is not so easy to be gentle to those who treat us badly.

여기 모든 사람이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관용했습니다. 바울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관용했습니다.

Here ‘to all’ includes those people who persecute us, are against us, and who attack us. Jesus said in Matthew 5:44,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Jesus showed His gentleness as evidence to all. Jesus showed His gentleness to all His enemies. Paul also showed his gentleness to his persecutors.

미국 대륙 서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카드놀이를 하다가 그만 이성을 잃고 권총으로 상대방을 쏘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청년은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과거에 성실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진정서를 꾸며서 주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주지사가 감동이 되어서 청년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There was an episode that occurred in the western part of America. A young man lost control while playing cards and shot another man killing him. As a result of his actions a court sentenced him to death. Actually, this young man had once lived a faithful life. So his neighbors delivered a petition to the governor of the state on behalf of this young man. The governor of the state, a Christian, was so moved by the written presentation that he decided to forgive the young man and grant him a pardon.

주지사는 사면장을 써서 성직자의 가운을 입고 형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나는 많이 만났소.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이니 조용히 돌아가시오.” 하고 만나주지를 앓았습니다. 그러자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있으니 기회를 주시오.” 그러자 청년은 “듣기 싫습니다. 당장 돌아가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The governor visited the jail with the letter of pardon while wearing clergy vestment. He attempted to meet the young man. The young man responded, “I have met many people like you, but it I have no use for you now. Please leave.” The governor said, “Young man, I brought something for you. Let me have a chance to give it to you.” The young man yelled, “I don’t want it. Get out!”

결국 주지사를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지사가 돌아가고 나자 간수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방금 주지사는 사면장을 갖고 당신을 용서하러 왔었소.” 그제야 청년은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잊지 말고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Finally, the governor left. After the governor departed a prison officer said to the young man, “The governor came to forgive you with a pardon.” Only then did the young man regret to

having done such a thing. He left the following last words at his execution: “I am dying not because I killed someone, but because of not receiving forgiveness.” I pray that we are vigilant to remember that Jesus forgives us our sins and that we must forgive others.

세 번째, 6 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Thirdly, verse 6 says,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만일 우리가 염려한다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삶은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패배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If we become anxious about anything, we will not achieve success. An anxious life not only cannot succeed but it can also be defeated. Why are people anxious about so many things?

오늘 본문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염려가 삶의 습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의 견고한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intended for those who already have good faith. Nevertheless, the Christians in Philippi seemed to be worried about something. Many good believers worry about things. Are you worried about something now during our worship service? In many cases, anxiety becomes a habit of in our lif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you will throw away the habit of anxiety.

어니 젤린스키(Ernie J. Zelinski)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The Joy of Not Knowing It All) 이란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 author Ernie J. Zelinski wrote a book titled, “The Joy of Not Knowing It All.”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염려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염려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40% of anxieties never come to reality. 30% of anxieties are what has already happened. 22% of anxieties are only slight worries. 4% of anxieties are what we cannot control with our own power/plan. And only 4% of anxieties are what we can control with our own power/plan.”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 장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염려는 문제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합니다. 여기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를 염려 대신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일, 인간관계의 일, 물질의 일, 질병의 일, 세상에서 직장을 구하는 일, 결혼의 일, 모든 일들에 염려대신 기도하라고 합니다.

What we must realize is that anxiety in our mind cannot help solve our problems. Jesus said in Matthew 6,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Anxiety cannot solve our problems; rather it makes our soul and body weak and daunts us in living out our lives. The Bible tells us that we should pray to overcome our weaknesses and for our problems instead of

worrying about them. The Bible tells us that we should pray for such things as our thoughts, our relationships, our money, our health, getting a job, getting married, and many other things.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어떻게 염려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염려의 문제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성숙하게 자라갑니다. 바울도 질병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염려 때문에 기도하였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When we pray to God, we need to remember one other thing. The Bible says, “...with thanksgiving...” How can we pray to God with thanksgiving while we have anxieties? Because we have anxieties, it makes us pray to God. Our faith can ultimately grow and our relationship with our LORD mature because of our anxieties. Paul had anxiety due to his sickness. He had anxiety for the church. Yet he had prayed for these anxieties and became a more mature Christian because of them.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읽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God is our father. He receives our prayers and gives back answers to them. God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He guards our hearts and our minds in Christ Jesus. After He listens to our prayers and answers them, He then gives us peace in our hearts and our minds.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 대해서 성공하고 타인에 대해서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If we want to succeed, we need to first have joy in our lives. If we want to succeed, there must be forgiveness and peace between us and others. If we want to succeed, we must pray to God. I pray that you are successful in bearing fruits in y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with God.